관심사 독해 2026-10-28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2026년 10월 27일(한국 시간 기준 전날)의 RSS 피드 새 글을 전문 독해한 리포트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를 뺀 17개 중 접속된 17개의 새 글 16편. 그중 14편을 다루고 2편(짧은 인용 한 편, 링크 모음 한 편)은 생략했다. 제외 피드 2개는 각각 로봇 차단(캡차)과 접근 거부(429→403)가 지속되어 새로운 신호가 없는 한 재시도하지 않는다.

어제의 리포트가 브라질 대선 결과를 전했다면,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도착했다. 같은 날 한 학회는 출판사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판정을 내렸고, 한 법원은 2년 가까이 끌던 파산 분쟁의 첫 합의를 승인했고, 한 다큐멘터리 리뷰는 '나는 톱니바퀴일 뿐'이라는 변명이 왜 판정 회피인지를 묻는다. 오늘의 공통 주제는 판정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평가하는가.

---

1. 대선 다음 날, 시장의 답 — 브라질

어제 본고가 다룬 브라질 대선의 후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카페 하이에크가 인용해 전한다. [사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노동자당)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자유당)을 51.8% 대 48.2%로 꺾고 4기 임기를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 뒤졌던 룰라의 역전승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브라질 주가지수 이보베스파(Ibovespa)가 10%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서킷브레이커)됐고, 재개 후에도 매도가 이어져 종가 기준 약 14% 하락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엑사메, G1)은 -13.9%, 6년 만의 최대 일일 낙폭으로 보도했다. 미국 상장 브라질 자산도 함께 무너졌다. 국영 석유사 페트로브라스의 미국예탁증서(ADR) -14%, 이타우 우니방쿠 ADR -20%, 브라질 전체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WZ는 -19.4%. 헤알화는 달러 대비 8.7% 절하됐고, 재무부는 이번 주 예정된 국채 입찰을 취소했다. 블룸버그와 G1에 따르면 일부 종목은 50~58% 떨어졌다.

숫자의 의미를 짚자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폭이다. 배경에는 재정 상태가 있다. [사실] WSJ 집계로 브라질은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근접할 전망이며, 룰라의 최근 4년 각각 적자가 GDP의 8%를 넘었다. 공공부채는 GDP의 82%를 넘어 상승 중이고, 2.6조 달러 규모의 경제는 2025년에 2.3% 성장했으나 올해는 2%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노동자당은 지난 24년 중 18년 가까이 집권했고, 그 사이 도미니카 공화국, 가이아나, 태국 등 14개국이 1인당 GDP에서 브라질을 추월했다는 것이 WSJ의 계산이다. [해석] WSJ 사설은 "룰라의 승리에는 정의가 있을지 모른다. 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에게 물려준 혼란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사설 특유의 논조임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시장의 급락은 투자자들의 평가이지 미래의 확정이 아니며, 개장 첫날의 가격은 과잉 반응인 경우도 많다. 다만 국채 입찰 취소처럼 정부가 즉

시 행동을 바꿀 만큼 실질적인 신호인 것은 맞다. 이콘브라우저(Econbrowser)는 같은 날 선거 관련 차트 한 장을 올렸다. 같은 숫자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용도다.

---

2. 학회가 출판사를 떠나다 — GEB 사태의 여파

지난 열흘간 이 리포트가 따라온 학술 저널 거버넌스 연쇄(『Games and Economic Behavior』 편집진 집단 사임, 인용 장사 의혹, Mathpocalypse와 Cell Press 내부 고발)에 여섯 번째 장이 추가됐다. 리트랙션 워치(Retraction Watch) 보도다. **[사실]** 게임이론학회(Game Theory Society)는 10월 9일 성명에서 자신들의 공식 저널인 『Games and Economic Behavior(GEB)』에 대한 "지원 철회와 관계 종료"를 선언했고, 11월 1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직접적 배경은 출판사 Elsevier가 주편집장 에르베 물랭(Herve Moulin, 글래스고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이어 기존 편집위원회와 협의 없이 새 편집진을 물색한 일이다. 이 결정에 항의해 편집자 6명과 자문 편집위원 약 60명이 집단 사임한 것이 지난 8월의 사태였다. 학회 성명은 출판사의 결정이 "저널 지배구조에서 학문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고, "학회 소유와 지배 아래 학문적 우수성, 편집 독립, 오픈 액세스(무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새 저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의 말을 옮긴다. 물랭은 편집자들이 학회와 Elsevier의 결별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 편집자 로베르토 세라노(브라운대)는 이번 지원 철회가 "떠나는 편집자들에 대한 지원 철회가 아니라, 우리의 집단 사임을 불러온 Elsevier 주도의 편집 방침 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lsevier 대변인은 "GEB 지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저널 운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회 임원 3명(커뮤니케이션 담당 부회장 올리비에 고스너, 회장 스티븐 모리스, 수석 부회장 조지 메일러스)은 리트랙션 워치의 거듭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참고로 학회의 다른 공식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Game Theory』는 Springer Nature가 출판한다.

왜 중요한가. 학술지는 출판사의 자산이지만 학문적 신뢰는 공동체가 만든다. 편집진 사임이 개인들의 항의였다면, 학회의 공식 지원 철회는 제도가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저널 이름은 출판사에 남고 평판은 떠나는 형국이 되면, '저널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물음이 현실의 문제가 된다.

짧게: 시드니대 조사, 천체물리학자 논문 2편 추가 철회

같은 매체의 다른 보도. **[사실]** 시드니대학교가 전 연구원 요아힘 슈미트(Joachim Schmidt)의 논문 2편(2013, 2014년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pace Physics』)을 추가로 철회했다. 조사는 태양 전파 폭발을 다룬 그림 여럿이 "시뮬레이션 산출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의 앞선 조사에서는 슈미트가 어도비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제작·변조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의 단독 책임으로 판정됐다. 쟁점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BATS-R-US가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번 조사는 지도교수였던 아이버 케언스가

2025년 초 대학에 우려를 알리면서 시작됐고, 대학은 두 조사 모두에서 케언스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회된 논문들은 각각 22회 인용됐다. 데이터 조작은 10년이 지나도 따라잡힌다는 사례다.

---

3. 이식 충격 연재, 완결 — 여덟 개의 토양

실험신학(Experimental Theology) 블로그의 "이식 충격(transplant shock)" 연재가 열 번째 글로 막을 내렸다. 이 리포트가 아홉 번째 글까지 따라왔으므로 완결편을 정리한다. 연재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식물을 다른 생태계로 옮기면 살 수는 있어도 토양과 기후가 달라 고전하듯, 가톨릭·정교회 전통에서 자란 영성 훈련(시간 기도, 렉시오 디비나 같은 묵상 기도, 고해, 금식)이 저교회(low-church) 개신교 공간에 옮겨 심어지면 고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글은 그 이유였던 여덟 가지 '토양의 대비'를 요약한다.

- **문화의 토양** —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가톨릭과의 대비로 자신을 정의해 왔다. 촛불, 전례 절기, 전통 기도문은 "너무 가톨릭 같다"는 이유만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부른다.
- **공동체 대 개인의 토양** — 원래 이 훈련들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것이었다. 선택적이고 개인화된 공간에 이식되면 영성 훈련이 자기계발이나 웰니스(건강 관리) 프로젝트로 변질된다.
- **성화 대 칭의의 토양** — 가톨릭·정교회는 구원을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 칭의(의롭다 여김을 받는 선언)를 강조하는 개신교에서는 노력과 훈련이 "행위 구원"의 불안을 건드린다.
- **합일 대 법정적 구원의 토양** — 신비적 합일(theosis)을 목표로 하는 전통에서 정화는 필수 경로다. 구원을 법적 판결로 이해하는 전통에서 변화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 **수도원 대 일상의 토양** — 수도원의 하루 전체가 훈련이었던 것을, 이미 빽빽한 가정과 직장 생활에 "추가"하면 낯선 부담이 된다.
- **협력 대 단독 사역의 토양** — 전통적으로 구원은 은혜와의 인간 협력으로 이해됐다("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 인간의 노력을 경계하는 전통에서는 훈련의 긴장 자체가 은혜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댈러스 윌라드의 명제, "은혜는 노력에 반대되지 않는다. 얻음(meriting)에 반대될 뿐이다"가 여기 연결된다.
- **금욕 대 치료의 토양** — 금식, 고해, 자기부인은 회개와 자제를 전제하는 문화에서 자랐다. 치료적이고 긍정 지향적인 문화에 이식되면 그 논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거부된다.
- **공로 대 전가의 토양** — 기도와 금식과 자선에 '공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과, 의는 오직 전가(imputation)된다는 전통 사이의 거리.

저자의 처방은 "지속적인 생태학적 경작(ongoing ecological cultivation)"이다. **[해석]** 요점은 이식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토양을 바꾸는 장기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 문화, 공동체 구조, 구원 이해까지 건드리는 일이므로 한 번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되지 않는

다. 열 편짜리 연재가 사실상 이 한 문장을 위해 쌓인 것이다. 신학적 주제지만, 낯선 제도나 관행을 다른 조직에 도입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일반론으로도 읽힌다.

---

4. 『NAZA』 — "톱니바퀴"라는 변명

크룩드 팀버(Crooked Timber)에 다큐멘터리 『NAZA』의 관람기가 올라왔다. 민감한 주제이므로 리뷰어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그것이 리뷰어의 관점임을 분명히 한다. **[영화 내용에 대한 리뷰어의 서술]** 『NAZA』는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24명의 이스라엘인을 인터뷰해 그 "기계"의 작동 방식을 그린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의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감청하고, 인공지능(AI)으로 누가 하마스 관련자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정해 그 집을 폭격한다. 제목 'NAZA'는 군 내부에서 부수적 피해(민간인 사상)를 세는 단위다. "20 NAZA"는 하마스 관련 추정 1명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 20명의 사망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숫자는 15, 20, 그리고 한 사례에서 500이었다고 리뷰어는 기억한다. 목표물이 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바람에 그의 가족 전원이 사망하고 목표물은 살아남은 사례도 다뤄진다. 북가자에는 민간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이 그어져 그 선을 넘는 사람은 사살됐고, 주민들은 시행착오로 그 선을 알아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

리뷰어가 가장 괴로웠다고 적은 실타래는 세 번째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기계의 톱니바퀴일 뿐"이라고 정당화하는 대목이다. 명령을 따를 뿐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며, IDF의 정보 업무는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이다. 리뷰어는 여기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떠올렸다고 쓴다. 연출 방식도 효과적이라 평한다. 인터뷰는 텔아비브 건물 옥상의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배경에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며, 가자의 참상 영상은 마지막 5분에만 나온다. 기술관료적 담화와 현실의 대비를 위한 구성이다. 리뷰어는 거의 매진된 상영관에서 영화가 끝났을 때 "완전한 침묵"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리뷰어의 관점]** 리뷰어는 이스라엘 정치 옹호자들이 비판자를 반유대주의로 낙인찍거나 유대인만이 논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 글의 댓글을 닫은 이유를 그렇게 밝혔다. 확인해 두면, 이 영화는 실재하며(ABC 뉴스가 10월 15일 보도했고, 이스라엘 어디서도 상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도 취지였다), IDF는 10월 26일 이 영화에 대한 공식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즉 영화의 존재와 그 논쟁성은 확인되지만, 영화 속 증언의 개별 내용은 독립 검증이 아닌 다큐멘터리의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

5. 만화 산업의 두 가지 소식

다이아몬드 파산, 첫 합의 승인

더 코믹스 저널(TCJ)의 재판 기록 분석 기사다. 44년간 북미 만화 유통을 사실상 독점했던 다이아몬드 코믹스(Diamond Comic Distributors)의

파산 사건에 첫 진전이 있었다. [사실] 10월 26일, 파산 법원 판사가 파산 관재인, 출판사 그룹, 창고 인수자 스파클 팝(Sparkle Pop) 사이의 합의를 승인했다.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다. 다이아몬드는 2025년 1월 파산을 신청했고 그해 5월 매각됐지만, 창고에 남은 상품의 소유권이 쟁점으로 남았다. 출판사들이 다이아몬드에 맡긴 물건은 위탁판매(consignment, 팔릴 때까지 소유권이 출판사에 남는 방식) 물량이었는데, 파산 후 다이아몬드 잔여 법인이 이 재고의 소유를 주장하며 위탁 출판사 31곳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고 안에는 추정 5천만 달러어치의 상품이 쌓여 있고, 팔리지 않은 만화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게다가 잔여 법인은 창고 임대료를 작년 12월부터 내지 않았고 재고 보험도 해지된 상태였다. 한편 창고를 인수한 스파클 팝은 분쟁 재고 일부를 이미 판매했고, 법원 명령으로 두 개의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금)에 840,151달러와 478,490달러를 예치했다.

승인된 합의의 뼈대는 이렇다. 두 번째 위탁 출판사 그룹(오니 프레스, 다크 호스, 밸트 코믹스 등 이른바 "Palik 그룹" 13개사)은 재고를 돌려받되, 처리 수수료로 창고 인수사에 재고 가치의 4%를 현물로 내거나 2%를 현금으로 내고 30일 안에 회수한다. 스파클 팝은 두 에스크로에서 합계 787,380달러를 받아 보관·처리 비용 청구를 정산한다. 파산 관재인은 나머지를 회수해 채권 변제에 쓴다. 기존 유통 계약은 모두 해지되고 소송은 철회된다. 다만 이 합의는 앞선 첫 번째 출판사 그룹(드로운 앤드 쿼터리, 판타그래픽스, BOOM! 스튜디오 등)의 별도 합의가 승인돼야 발효되며, 그 심리는 11월 2일이다. 위반 소송 등 다른 소송도 남아 있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석]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다. 다이아몬드라는 중심축이 사라진 자리에 현재는 세 곳의 대형 배급사(Lunar, Penguin Random House, Universal)와 여러 소규모 배급사가 들어섰고, 판매 데이터와 카탈로그의 중앙 집중은 사라졌다. 매년 열리던 무료 만화 행사 '프리 코믹북 데이'마저 두 행사로 갈라졌다. 파산이 남긴 것은 법적 분쟁만이 아니라, 독점이 감춰주던 산업 기반 시설의 공백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중간에 낀 소규모 출판사들이었다.

50년 만의 재발간 — 『Hello, I'm Johnny Cash』

같은 매체의 리뷰. 1976년 기독교 만화 출판사 스파이어(Spire Christian Comics)가 낸 조니 캐시 전기 만화가 Z2 코믹스에 의해 리마스터 재간됐다. 당시 39센트짜리가 이번에는 9.99달러다. [사실] 그림은 알 하틀리(Al Hartley)가 그렸다. 스탠 리와 함께 아틀라스·마블에서 20년을 일한 실버 에이지 작가로, 1967년 격렬한 회심을 경험한 뒤 거듭난(born-again) 기독교인이 됐고, 나중에는 아치(Archie) 캐릭터의 복음주의 만화 라이선스까지 성사시킨 인물이다. 만화는 하틀리와 전 백악관 예배당 담임 빌리 제올리가 캐시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리뷰어는 약물 중독의 후반부 장면, 캐시가 테네시의 니카잭 동굴로 들어가 죽으려다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몇 시간을 기어 나오는 장면을 이 만화의 정점으로 꼽는다. EC 호러 만화 같은 색채로 그려졌다는 평이다. 전체 연령가여서 형 잭의 사고사, 베트남 전쟁 반대, 원주민 옹호 활동 같은 어두운 면은 순화됐

다. [해석] 이 만화는 이후 KISS, 앨리스 쿠퍼, 비틀즈, 프린스로 이어지는 '음악인 전기 만화' 계보의 출발점이다. 리뷰어는 캐시의 말로 마무리한다. "가끔 나는 두 사람이다. 조니는 착한 사람이고, 캐시가 문제를 일으킨다. 둘은 싸운다." 위의 이식 충격 연재와 무심코 이어지는 문장이다.

짧은 메모

- **이란 앞바다의 함대 집결(Econbrowser).** 미 해군연구소(USNI)의 공개 자료 기준으로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단이 조지 워싱턴 전단을 교체하며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 전단이 증강되는 배치가 진행 중이고, 11월에 이란 인근에서 집결될 수 있다는 지도 분석이다. 저자는 행정부가 "이란 정권의 붕괴와 항복이 임박했다"는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한다. 게임이론적 분석은 상대의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는데 이 경우 그 가정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란의 해상 원유 재고가 소진됐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 **최저임금 연구를 시험하는 1,440개의 사양(Cafe Hayek).** 캘리포니아가 패스트푸드 업종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린 정책의 고용 효과를 두고, 클레멘스(Clemens) 등의 NBER 작업논문(w35931)이 합성통제법(synthetic control)을 1,440가지 방식으로 다시 돌렸다. 합성통제법이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여러 지역의 가중평균으로 '만약 정책이 없었다면의 캘리포니아'를 만들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사양(specification, 분석 설정)을 1,440개로 늘려 결과가 설정에 따라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결과의 견고성 자체를 묻는 방법론 연구다.
- **스콧 애런슨의 팟캐스트 소개 속 한 줄.** 양자컴퓨팅 연구자 애런슨이 자신의 팟캐스트 출연 목록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다. 학생들이 전하기를, OpenAI 모델이 3SAT 문제를 대략 $\exp(n/\sqrt{\log n})$ 시간에 푸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지수시간가설(ETH, 일부 NP-난제는 지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복잡도 이론의 표준 가설)을 반박했다는 것이다. 애런슨의 논평은 "이전 코스를 소화하기도 전에 끝없는 뷔페가 계속된다". 본문 중 한 단락의 부언이며 독립적인 확인은 없다. 사실이라면 계산복잡도의 큰 사건이므로 후속 보도를 지켜볼 가치가 있다.
- **AI가 고른 영화 리뷰 11편(Marginal Revolution).** 지난번의 '감정적 순간' 아카이브에 이은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ChatGPT가 블로그 보관소에서 타일러 카우언과 알렉스 타바록의 영화·TV 리뷰 11편을 골랐다. 선정 기준은 작품의 순위가 아니라 "비평의 질"이다. 2013년에 쓴 『Her』 리뷰("우리를 노예로 삼을까, 개가 될까, 친구가 될까, 거래 상대가 될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기술 예측과 "솔로 잔차(경제 성장에서 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몫)" 농담, 『Fleabag』의 종교적 어둠 읽기, 『기생충』 해석 논쟁 등이 포함됐다.

- **"Who's on First?"는 재미있는가(Marginal Revolution).** 카우언의 문화비평. 애벗과 코스텔로의 유명한 콩트는 실은 웃기지 않으며, 다른 읽기가 가능하다. 애벗(기성 엘리트의 대역)이 코스텔로(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에게 선수들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기성 체제가 "덜 배운" 이민자를 설명도 사과도 없이 말장난으로 농락하는 미국의 풍경으로 읽는 해석이다. "인종차별이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민족적 편견을 희화화하며 불편함을 남긴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 **AI 규제, 연방이 우선인가(Marginal Revolution).** 뉴욕타임스 5인 심포지엄에서 카우언은 AI 기업 규제에 대한 연방 우선권(연방법이 주법을 우선하는 원칙)을 옹호했다.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 헌법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패널 대부분이 그의 대부분의 논점에 반대했다.
- **캐나다의 장단기 금리차(Econbrowser).** 장기와 단기 국채 금리의 차이(텀 스프레드)가 경기침체의 신호로 작동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침체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술적 논점. 해석자가 결과를 고른다는, 위의 1,440개 사양 논문과 통하는 주제다.

오늘 생략한 글

카플란(Bryan Caplan)의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에 관한 짧은 인용 한 단락(Cafe Hayek), 마지널 레볼루션의 월요일 링크 모음. 다룬 14편과 합해 16편이다.

오늘의 필독 링크

- 『NAZA』 리뷰 — https://crookedtimber.org/2026/10/26/naza-on-being-a-cog-in-a-machine/
- 게임이론학회의 GEB 지원 철회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7/game-theory-society-yanks-support-for-journal-after-elsevier-fails-to-renew-eic-contract/
- 다이아몬드 파산 합의 분석 — https://www.tcj.com/could-a-publisher-settlement-spell-the-beginning-of-the-end-for-diamond-disputes/
- 이식 충격 Part 10 (완결)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transplant-shock-and-spiritual_02131228672.html
- 브라질 시장 반응 (카페 하이에크, WSJ 인용) — https://cafehayek.com/2026/10/some-links-3218.html
- 『Hello, I'm Johnny Cash』 리뷰 — https://www.tcj.com/reviews/hello-im-johnny-cash/